



범 타는 그만... 虎 타 터진다

KIA 이범호 2년의 긴 부진 털고 홈런포 가동 '해결사 본능' 과시



KIA 이범호의 '해결사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 올 시즌 KIA 타선의 마지막 조각은 이범호였다.

2011년 초반 영양가 만점의 타격으로 KIA의 신해결사로 떠올랐던 이범호는 시즌 막바지 헬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침체에 빠졌다.

부상 여파로 지난해에도 42경기에 나와 140타수 41안타(타율 0.293) 2홈런 19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쳐 이범호의 추락은 계속됐다.

올 시즌 초반에도 이범호의 침묵은 이어졌다. 해결사에서 천덕꾸러기가 됐던 이범호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지난 17일 팀의 3연패를 막은 LG전 3점포의 주인공이 됐던 이범호가 21일 한화의 경기에서도 손맛을 보면서 선동열 감독에게 500승을 안겨줬다. 1-1로 맞선 3회 타진 역전 투런포는 8-2로 경기가 끝나면서 결승 홈런이 됐다.

이범호가 장외로 공을 날린 4경기에서 KIA는 3승1무를 기록했다.

이범호의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지만 아직 길이 남았다.

이범호는 "나쁜 건 아니다"고 웃음을 지었지만

"실투가 홈런으로 연결됐다. 타석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아직 완벽한 밸런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100%는 아니지만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은 한결 가볍다. 이범호가 그리는 시간은 2011년이다.

이범호는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지만 KIA에 와서 잘 맞을 때의 느낌은 아니다. 2011년의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려고 하는데 야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히팅 포인트와 오른손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범호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내 상태를 잘 아는데 히팅 포인트가 너무 뒤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가져왔다. 타격할 때 오른손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썼더니 타구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범호는 일본에서 보낸 201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12시즌 동안 179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여러 차례 홈런 세러머니를 했던 이범호지만 올 시즌 그라운드를 도는 기분은 예전과 다르다. 2년의 부진이 있었기에 올 시즌 이범호에게 느껴지는 홈런의 가치는 특별하다.

17일 부진을 털어내는 홈런을 날린 뒤 덕아웃에서 짓던 정한 표정이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범호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그랬다. 특별한 홈런이었다. 안 아프고 운동장에 있다는 것이 좋지만 2년 동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 의무는 넘치는데 잘 안됐다. 100타석이 넘고 150타석이 되면 더 좋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3회말 2사 1루 KIA 이범호가 2점홈런을 치고 김선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500승 선동열 감독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① 덕아웃 말말말

▲오래 하다 보면 다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인데=500승 축하 인사를 받은 선동열 감독. 선 감독은 21일 한화전 8-2 승리로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1990년 김명덕 전 빙그레 감독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통산 10번째 기록이다. 선 감독은 2004년 삼성의 수석코치를 거쳐 2005년 삼성 감독을 맡았으며, 부임 첫 해 페넌트레이스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며 초보 감독의 저력을 과시했다. 2006년 169경기(역대 최소경기) 만에 감독 통산 100승을 기록했고, 지난 2007년 8월에도 역시 최소 경기 200승을 장식했다.

▲그만 사=덕아웃에 있던 KIA 선수들, 21일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된 양현종이 피자를 돌리겠다고 하자. 올 시즌 피자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면서, 수훈선수, 승리투수 등이 된 선수들은 기념으로 선수단에 피자를 돌리고 있다.

▲여기서 500개를 내가 해줬어=이종범 한화 주루코치, KIA의 올 시즌 신기록 달성일지 중 3800 도루 기록을 보고, 이종범은 통산 510개의 도루를 기록했다.

▲내가 뒤집었잖아=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0.305의 타율과 함께 10승을 동시에 기록하며 투수와 타자로 활약했던 김성한 한화 수석코치, 중간 계투로 주로 나왔는데 타자로 역전도 시키며 10승을 채웠으며.

▲바보 같이 하루에 하나씩 하네=21일 1사 만루에서 기습번트를 시도했던 홍재호, 상대 내야진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보고 번트를 시도했다가 더블 플레이가 됐다면서, 타격이 좋으면 수비에서 실수를 하고, 수비가 좋으면 안타를 못 때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며.

▲몸에 좋은 건 다 해봐이지=건강 목걸이를 받은 김원섭, 기존에 쓰던 목걸이까지 두 개를 동시에 목에 걸면서.

▲기(氣) 받으려고요=친정팀을 방문한 김경민, 김선빈으로부터 받은 방방이를 들고.

▲후배 아니야. 나는 게임동에서 나왔고 재는 진월동에서 나왔어=22일 1군에 등용된 고등학교 후배 김주형을 본 이순철 수석코치, 본인은 게임동에 있던 광주상고를 나왔고 김주형은 진월동에 있는 동성고를 나왔다고 농담을 하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방시레 금메달 '빙그레'

정기룡장군배 전국 승마대회 복합마술 우승

승마 광주대표인 방시레(25·KRA승마단)가 23일 경북 상주 국제 승마장에서 폐막한 '제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 승마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방시레는 일반부 복합마술(馬術) 경기에 '토마스오말라'를 타고 출전해 1위에 올랐다. 2위는 이권주(경북대), 3위는 류시원(포항대)이 차지했다.

복합마술은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가로 60m·세로 20m의 마장에서 진행되는 마장마술은 선수가 말을 타고 다양한 컨트를 기술을 피겨스케이팅처럼 평가한다. 장애물 경기는 각자의 말을 몰고 정해진 거리의 경기장에 설치

된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겨루며, 장애물 높이에 따라 S-1·A·B·C클래스로 나뉜다.

앞서 방시레는 지난 4월 '제42회 KRA컵 전국 승마대회'와 3월 '제37회 전국단체 승마대회' 복합마술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부친 고향인 광주인 방시레는 종합마술 국가대표이며,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한편 경북 상주 출신인 정기룡 장군(1562~1622)은 임진왜란때 50명의 기병으로 수천명의 왜군을 격파하는 등 60여 차례 전공을 세워 '육전(陸戰)의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복합마술(馬術) 경기에서 잇따라 좋은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방시레(KRA승마단).

광주 FC 루시오 챌린지 주간 MVP

유종현은 '베스트 11'

광주의 5월 무패행진을 이끈 루시오가 주간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일 K리그 챌린지 9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총주와의 원정경기에서 멋진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킨 광주 공격수 루시오는 '살아나고 있는 득점력, 선 굵은 플레이로 팀 공격을 책임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9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7라운드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던 루시오는 지난 총주와의 경기에서도 1-1로 맞선 후반 24분 시즌 3호골을 터트리며 공격 본능을 과시했다.

광주 수비수 유종현도 2주 연속 베스트 11에 올랐다.

8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 헤딩골을 선



루시오

유종현

보였던 유종현은 9라운드 총주와의 경기에서는 김은선의 득점을 도우며 연속해서 베스트 11이 됐다.

유종현은 '196cm의 키가 돋보였던 제공권 장악, 효과적인 공격 지원까지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맨시터·뉴욕 양키스 손잡고 미국 프로축구단 창단

잉글랜드 프로축구 '부자구단'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터)와 미국 프로야구(MLB)의 '명가' 뉴욕 양키스가 미국프로축구(MLS) 20번째 구단인 '뉴욕시티 풋볼클럽'(NYCFC)의 창단을 위해 손을 잡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22일 "맨시터와 뉴욕 양키스가 뉴욕을 연고로 하는 NYCFC 창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새 축구단은 2015년부터 MLS의 20번째

팀으로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맨시터는 새 구단 창단에 1억달러(약 1113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뉴욕 양키스는 전체 지분의 25%를 소유하기로 했다.

뉴욕 양키스는 이미 MLS에 레드볼스를 프랜차이즈 구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가 뉴욕이 아닌 뉴저지여서 맨시터와 공동 투자해 뉴욕을 연고로 하는 축구단을 만들기로 했다. /연합뉴스

북한 남자농구단 초청한다

KBL, 통일부서 접촉 허가서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한국농구연맹(KBL·총재 한선교)이 북한 남자농구단을 초청하기 위한 첫 절차를 밟았다.

KBL은 오는 8월 북한 남자농구단을 초청, 남북 농구대잔치를 열기 위해 최근 통일

22일 밝혔다. KBL은 국제 농구연맹(FIBA)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북한 농구 관계자들과 접촉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사회안전성 소속 압록강체육단 남자 프로농구팀(태풍), 여자 프로농구팀(폭풍), 평양시 프로농구팀(우뢰) 등 130여 개의 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조선농구협회는 FIBA의 212개 가맹 협회중 하나이며 현재 농구협회 회장은 백갑순, 사무총장은 오흥룡이다. /연합뉴스